

제 109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10.7)

Military Authority and Divine Country

-무위(武威)와 신국(神國)-

The Guiding Principles of Foreign Relations in Tokugawa Regime

허남린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근세일본의 국제관계의 두 중심축: 무위 (武威)와 신국 (神國)

근세 일본의 외교정책을 논하는데 있어서 무위 (武威)와 신국 (神國)은 빼놓을 수 없는 개념들이다. 무위 (武威)란 무사 (武士)가 중심이 되어 권력을 행사했었던 근세 일본의 무사사회 (武士社會)에 관한 것이며, 신국 (神國)이란 천황이 근세 일본사회의 중심에 있었음을 뜻한다.

*전근대에 있어서의 조선과 일본의 관계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서로를 경시하는 관계였다. 이는 조선이 중국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또한 일본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선과 일본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실질적으로 연출된 것이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 그리고 식민지화라고 할 수 있다.

Q&A

Q - 오늘 ‘무위와 신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사용한 ‘무위 (武威)’라는 용어에는 다양한 개념이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개념으로서 ‘무위 (武威)’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궁금하다.

A - 도쿠가와 막부에 한해서 말씀 드리자면 실질적인 무력 (practical power)으로서의 무위를 사용했던 경우는 상당히 적었다. 굳이 말하자면, 누군가에 대한 보복이나 숙청을 할 경우에만 실질적인 무력으로서의 무위를 사용했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오늘 논문에서는 soft・smart power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무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무위 (武威)’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